

문 의	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과 장 김현주 주무관 김재탁	042-481-5057 042-481-3455
	2019년 11월 18일(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특허청, 국민에게 적극행정 노력을 인정받다!

-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올해 전사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, 「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」에서 인사혁신처장상(장려상)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- 「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」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민이 공감·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·확산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
-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된 144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(서면), 2차(발표) 및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했다.
- 특허청은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만 있으면 기술개발,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‘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’ 노력을 인정받아 대회에서 수상했으며,

* (중전) 국내은행은 부실발생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특허담보 대출을 기피하여 물적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움

☞ (해결) 특허청은 은행의 회수 부담 경감을 위해 ‘회수지원사업’ 추진, 금융위원회와의 협업 및 은행권 설득을 지속한 끝에 5대 시중은행이 특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대출 실적이 급증하는 등의 성과 창출

* 기업수 및 대출규모: ('18년) 63개社, 844억원 → ('19년 9월) 260개社, 1,726억원

** '19년 상반기 특허담보대출 이용기업 실태조사(54개社) 결과, 71%가 우대금리 수혜

- 올해 동 경진대회에서 신설된 ‘아름다운 도전’ 부문에서는 “특허키움 리워드 제도**”가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잇따른 외부 수상으로 적극적인 도전문화 확산에 더욱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.

*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, 철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 또는 성과를 도출한 우수사례

** 특허청이 개인,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특허권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마일리지 제도(‘10년~)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정책수요자의 마일리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(번거로운 이용방식, 적립비율 산정 등) 분석을 통해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보완한 ‘특허키움리워드 제도’가 시행 4개월만에 4.7배 증가한 사용 성과를 달성

- 또한, 특허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·공유하기 위해 청내 ‘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’를 9~10월 개최하여

- 기업 간 상호부조를 통해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“특허공제를 통한 중소·중견기업 보호”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으며,
- 중소기업이면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특허 수수료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.

-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“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‘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름다운 도전상 주요내용 1부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재택(☎ 042-481-34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사례명	주요내용
적극행정 우수사례	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분쟁 고민해결	· (중전)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및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경영차질 초래 ☞ (개선) 중소기업에 국내외 특허 분쟁 발생시 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특허공제 시행을 통해 비용을 대출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* 특허공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,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품 재설계 등 추진 · (성과) 특허공제 상품출시('19.8.29) 이후 50 영업일('19.11.12)만에 1,038개의 중소기업이 가입 신청하여 효율적인 분쟁 대비 가능
적극행정 우수사례	사장님!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	· (중전) 국내 시중은행은 특허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부실발생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특허담보대출을 기피하여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움 ☞ (개선) 중소기업에 국내외 특허 분쟁 발생시 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특허공제 시행을 통해 비용을 대출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* 「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」 마련, 회수지원기구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, 금융권 인식제고를 위한 「지식재산 금융 포럼」 개최 및 「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MOU」 등 추진 · (성과) 기업수/대출액 ('18년 637개사, 844억원 → ('19년 9월) 260개사, 1,726억원
적극행정 우수사례	중소기업 특허수수료! 감면신청 안해도, 증명서류 없어도 감면해줘요	· (중전) 중소기업은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료 등의 수수료를 납부할 때마다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, 증명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 상존 ☞ (개선) 출원인이 중소기업이면 수수료 감면 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이 없어도 특허청이 알아서 수수료 감면혜택 제공 * 서류제출 없이 중소기업정보 확인을 위해 중기부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 구축, 방식심사 절차 개선 등 추진 · (성과)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절차 폐지로 연간 약 20만시간·약 2억원 절감과 11만5천건의 중소기업 출원·등록 수수료 절감 예상
아름다운 도전상	눈물을 머금고 중단했던 「특허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」! 「특허키움리워드 제도」로 금의환향하다.	· (추진배경)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의 특허권 창출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('10.1) *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립대상, 사용범위 및 대상 확대와 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용률 제고 성과 미진 · (실패원인분석) 낮은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 비율 및 번거로운 이용 방식 등 정책수요자의 특성을 간과 ☞ (개선) 당초 정책 취지 달성 및 제도 이용이 편리한 「특허키움리워드 제도」를 도입 * 포인트 적립비율 확대 및 옵트아웃(Opt-out)으로 이용 방식 개선 · (성과) 시행 4개월만에 중전 마일리지 제도의 10년간 누적사용 규모(6천9백만원)의 2배를 상회하는 규모(1억5천만원 상당)로 리워드 포인트가 사용